

2017년 10월 전문건설업(SC) 경기실사지수(BSI)

I. 2017년 10월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11월 전망

○ 10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9월과 유사

- 10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¹⁾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73.5로 나타남. 이는 기존 전망치인 7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월에 이어 금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조사치로서 여전히 전년과 금년 상반기의 건설수주가 전문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²⁾.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월보다 상승한 94.6(81.1→94.6)로, 지방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한 66.9(71.0→66.9)로 나타남. 다음 11월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1> 2017년 10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11월 전망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2017년	10월 평가	94.6	66.9
	11월 전망	73.0	68.6



[그림-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월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전의 추이는 종전까지 분기로 조사된 경기실사지수값을 이용함.
 2) 참고로 지난 10월에 국내 주요 종합건설사들이 발표한 3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기존의 흑자기조가 3분기에도 지속됨은 물론 영업이익과 수주액 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러한 실적이 주로 주택부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주택공사의 경우 매출구조가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므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임. 한편 이번 조사에서 11월의 전망이 하락세로 나타난 것은 건설공사의 동계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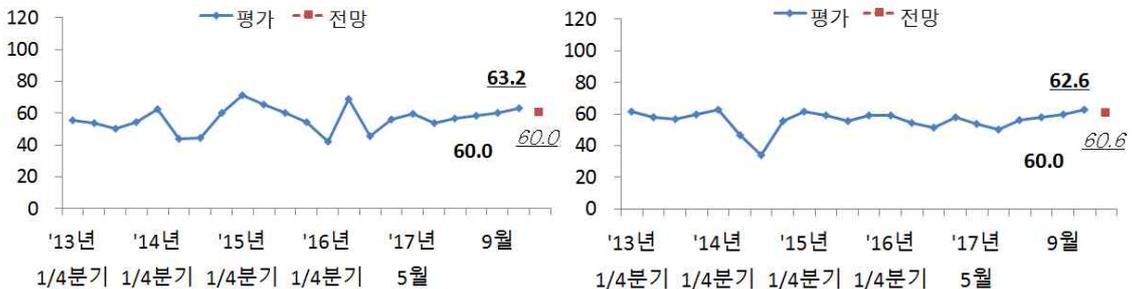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월보다 소폭 상승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은 전월보다 3.2p 오른 63.2로, 하도급은 2.6p 오른 62.6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원도급은 수도권은 전월과 동일했고 지방은 소폭 상승했으며, 하도급은 수도권이 상승한 반면 지방은 전월과 비슷하게 나타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78.4→78.4)은 전월과 동일했으며 지방(55.1→58.5)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함.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4.9→73.0)이 상승한 반면 지방(58.7→59.3)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2> 2017년 10월 전문건설업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원도급	10월 평가	63.2	78.4 / 58.5
	11월 전망	60.0	64.9 / 58.5
하도급	10월 평가	62.6	73.0 / 59.3
	11월 전망	60.6	64.9 / 59.3



<원도급>

<하도급>

[그림-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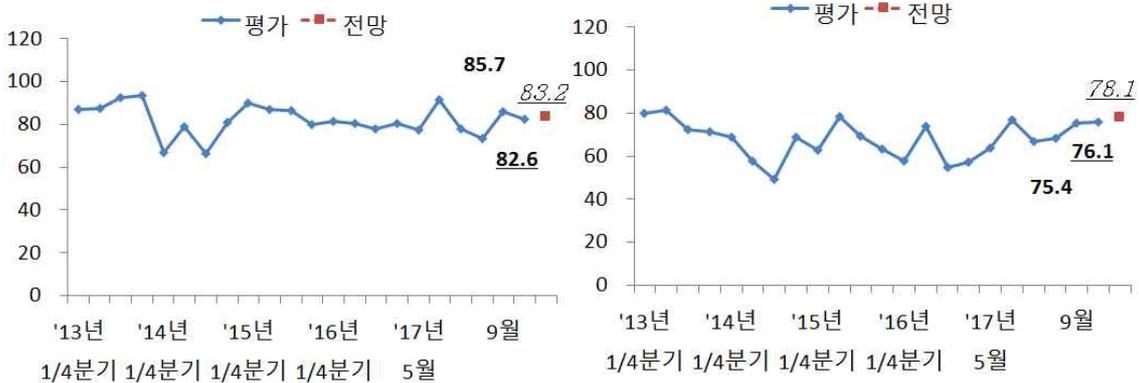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하락, 자금조달지수는 전월과 유사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3.1p 낮은 82.6으로,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소폭 높지만 전월과 거의 유사한 76.1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금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91.9→105.4)은 전월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지방(84.1→75.4)은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함
- 자금조달지수는 수도권(78.4→89.2)에서 전월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지방(74.6→72.0)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함.

<표-3> 2017년 10월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공사대금수금	10월 평가	82.6	105.4	75.4
	11월 전망	83.2	97.3	78.8
자금조달	10월 평가	76.1	89.2	72.0
	11월 전망	78.1	89.2	74.6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그림-3]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추이

3. 인건비지수

○ 인건비지수는 전월에 이어 상승

-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3.2p 높은 63.2로 나타남. 이렇듯 인건비 지수는 금년 하반기 내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설현장에서 인건비에 대한 인식이 이미 높아진,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굳어진 것에 따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³⁾⁴⁾.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1.4→59.5)과 지방(62.3→64.4)에서 모두 전월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4> 2017년 10월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인건비	10월 평가	63.2	64.4
	11월 전망	66.5	69.5



[그림-4]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추이

3) 참고로 현재 건설현장의 급증한 인력수요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한 분야는 대표적으로 도배, 마루, 타일 등 실내마감 및 인테리어공사로 알려져 있음.
 4) 실제로 응답업체들 중에서 인건비가 하락했다고 평가하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는 전무했으며, 전월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답한 업체들이 많았음. 때문에 인건비 지수의 계산결과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4. 자재수급지수⁵⁾

○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98.1(98.9→98.1)로 나타남. 통상적으로 동 지수가 100을 넘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하반기 내내 하락추세를 보이는 현황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의 여지가 있음. 다음 11월에는 지수의 상승이 전망되지만 이는 공사비수기가 다가옴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97.3→102.7)에서는 전월보다 상승, 지방(99.3→96.6)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⁶⁾.

<표-5> 2017년 10월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자재수급	10월 평가	98.1	102.7	96.6
	11월 전망	103.2	105.4	102.5



[그림-5]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추이

5)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 때문임.
 6) 골재수급문제로 인한 레미콘 업계 등의 가격인상요구는 물론이거니와 금년 초에 비해 크게 오른 철근 가격 등도 건설현장에서의 자재수급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5. 건설장비수급지수⁷⁾

○ 장비수급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장비수급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106.5(110.9→106.5)로 조사되었으며 다음 11월에는 이와 유사한 보다 소폭 하락한 105.8로 전망됨. 하지만 이러한 수치변동을 실제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의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을 것임.
- 현 시점의 건설현장들은 마감공사가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으로 자리잡은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종에서 중장비가 요구되는 업종은 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해 국내 건설기계시장은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천공기와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13.5→113.5)의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지방(110.1→104.2)에서는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4> 2017년 10월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장비수급	10월 평가	106.5	113.5	104.2
	11월 전망	105.8	113.5	103.4

7) 건설장비수급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조사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임.

※ 참고: 2017년 10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전체	지역		
			수도권	지방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73.5	94.6	66.9
		차월 전망	69.7	73.0	68.6
공사물량	원도급	금월 평가	63.2	78.4	58.5
		차월 전망	60.0	64.9	58.5
	하도급	금월 평가	62.6	73.0	59.3
		차월 전망	60.6	64.9	59.3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82.6	105.4	75.4
		차월 전망	83.2	97.3	78.8
	자금조달	금월 평가	76.1	89.2	72.0
		차월 전망	78.1	89.2	74.6
인건비		금월 평가	63.2	59.5	64.4
		차월 전망	66.5	56.8	69.5
건설자재 수급		금월 평가	98.1	102.7	96.6
		차월 전망	103.2	105.4	102.5
건설장비 수급		금월 평가	106.5	113.5	104.2
		차월 전망	105.8	113.5	103.4

문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